

The Religious Educational Implications of Laozi and Wittgenstein's 'Silence'

Kyungim Lee¹, Yeongjoo Kim^{2*}

¹Dongguk University, ²Daejin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what Laozi and Wittgenstein's 'silence' means, and to reveal the religious educational implications of silence.

CONTENTS Can human language describe everything in the world as it is? If it cannot be explained in words, how can it be revealed that there is no clear explanation in words, especially like the truth of religion?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Laozi said that those who speak do not know, and those who know do not speak(知者不言), so those who have learned the truth are bound to reveal the truth by putting it into action. Wittgenstein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actice while pointing out the limitations of language through the proposition, "Clear what can be said, but silence what cannot be said."

RESULTS This study will closely examine the silence emphasized by Laozi and Wittgenstein and reveal what the common silence of the two thinkers means in terms of religious education. In a world where things that are not clear are spoken too easily, this study attempts to indicate that the discourse on the silence of the two thinkers aims to restore human nature through practice.

KEY WORDS Laozi, Wittgenstein, Those who know do not speak(知者不言), Silence, Truth, Practice

* Corresponding to Yeongj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Religion and Culture, Daejin University)
E-mail : eureka0710@daeji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노자와 비트겐슈타인의 '침묵'의 종교교육적 함의

이경임¹, 김영주²

¹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생, ²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논문은 노자와 비트겐슈타인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침묵에 담긴 종교교육적 함의를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인간은 언어를 통해 모든 것을 설명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언어라는 것은 말하는 자의 인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인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게 되는 셈이며, 결국에는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세계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있을까?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특히 종교의 진리처럼 말로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본 연구의 시작점이다.

노자는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言者不知 知者不言)고 하여 진리를 체득한 자는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비트겐슈타인 역시 말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하되,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는 명제를 통해 언어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자와 비트겐슈타인이 강조한 침묵에 천착하여 두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침묵이 종교교육적으로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명료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쉽게 말하는 세상에서 두 사상가의 침묵의 담론이 지향하는 바가 실천을 통한 본성의 회복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주제어 노자, 비트겐슈타인, 지자불언(知者不言), 침묵, 진리, 실천

I. 들어가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진정한 특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에 있다(Harari, Cho trans., 2015: 48).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세상을 상상하고 해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들은 서로의 결집을 통하여 거대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인간이 언제부터 언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지만, 약 7만년 전부터 3만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인지혁명(Harari, Cho trans., 2015: 44)은 언어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언어를 통해 전설, 신화, 종교 등이 등장한 것이다.

언어의 등장이 인간의 문명을 급속도로 발전시켰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어(글, 말)로서 기록하였고, 후대로 전승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명들을 펼쳐나갔기 때문이다.

인간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종(種)이다. 물리적인 것부터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는 소통이 전제된다. 언어는 누구나 공유하는 일정한 기호(Chung, 2003: 241)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행위가 된다.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표현된 내용에 대해 타인은 언어로써 대답한다. 물론 몸 언어(몸짓)도 훌륭한 소통매체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사하는 구술언어만큼은 효과적이지 않다. 아무튼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듯하다. 그러나 언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경험을 언어에 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모두를 담아낼 수 없고,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는 오해를 양산하기도 한다. 언어가 개인의 삶을 표현하는 도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어가 개인의 삶을 대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것은 말을 하는 자가 말하려고 하는 대상을 형상화하여 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자(주체)와 말하여지는 대상(객체)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말을 한다는 것은 인식의 범주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말하여지는 대상 너머의 것과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가 되는 셈이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는 세상의 것을 대상화하고 구성함으로써 세상을 표현한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정말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 수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였을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노자의 ‘지자불언(知者不言)’과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는 명제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한다. 노자의 ‘지자불언’과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는 명제는 언어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언어의 한계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진리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실천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노자의 ‘불언(不言)’

과 비트겐슈타인의 ‘침묵’이 실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노자와 비트겐슈타인의 ‘불언’과 ‘침묵’을 비교함으로써 두 사상가가 이야기하고자 하였던 ‘침묵’의 종교교육적 함의를 살피고자 하였으며, 침묵의 담론이 실천을 통한 본성의 회복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II. 언어의 한계성과 침묵

1. 노자의 ‘不語’와 언어의 한계성

노자철학에서 언어의 한계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지자불언 언자부지(知者不言 言者不知)’이다. “진리를 아는 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말을 하는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구절을 『도덕경(道德經)』의 시작인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와 연결시켜보면 ‘知者不言 言者不知’에서의 ‘지’는 ‘도를 앎’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道可道 非常道’의 해석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해석의 공통점은 “도를 가히 말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는 항상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도를 ‘이러이러한 도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해라 할 수 있다(Cho, 2003: 212). 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기준으로 ‘지’를 바라보면 ‘지’는 진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셈이다.

‘知者不言 言者不知’는 흔히들 말하는 ‘아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 선협지와 경험지가 그것이다.

선협지는 경험하지 않고도 아는 것으로, 새가 날 줄 알며, 물고기가 헤엄칠 줄 아는 것 등이다. 이에 비해서 경험지는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니, 운전할 줄 아는 것, 글자를 아는 것, 수학문제를 풀 수 있는 것 등이다(Lee, 2001: 385). 경험지는 어떤 식으로든 학습을 통해 익힌 것으로 구별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이에 해당되는 바, 경험지를 통해 익힌 것은 모두 말로 표현 가능하다. 그러나 선협지는 경험지 이전의 어떤 것으로 선협지에 의한 것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학습에 의해 지식이 쌓이면 경험지는 증가하는 반면, 선협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시 말해 말로 표현 가능한 모든 것은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 낸 것이다. 새가 난다는 것과 물고기가 헤엄친다는 것은 실제로 새가 나는 것인지와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의식이 창조해 낸 어떤 허상인지도 모른다. 사랑, 증오, 아름다움, 추함 등의 것들 역시 인간의 의식이 창조해 낸 허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경험지가 쌓여간다는 것은 허상 또한 쌓여가고 있다는 다른 표현이다. 학습에 의한 경험지의 증대가 결국에는 진리의 세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학습을 통한 경험지의 세계를 말로서 표현한다. 그러나 경험지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진리일 수 없다. 진리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Lee, 2001: 387).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적용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말 자체만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다보니 진리를 이해하기보다는 말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 숨은 뜻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다.

언어의 한계성과 관련된 노자의 견해는 장자에게도 이어진다. 장자는 「천도(天道)」에서 책과 관련한 언어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세상에서 도를 얻기 위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책이다. 그러나 책은 말을 늘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말에는 소중한 데가 없다. 말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뜻 때문이다. 뜻에는 가리키는 바가 있다. 뜻이 가리키는 것을 말로는 전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말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책을 역시 소중하게 전해주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소중히 여긴대도 소중하게 생각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란 정말로 소중하지는 않다. 도대체 눈으로 보아서 보이는 것은 사물의 형체와 색깔이고 귀로 들어서 들리는 것은 사물의 이름과 음성이다. 슬프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형체, 색깔, 이름, 음성으로 도의 참모습을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그 형체, 색깔, 이름, 음성으로는 도저히 도의 참모습을 터득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로 설명하는 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세상에 이 사실을 누가 과연 알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그리고 교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보재가 바로 책이다. 특히 책 내용이 성인의 언설을 기록한 것이면 더더욱 신뢰를 갖는다.

장자는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책에 적혀 있는 글, 즉 언어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뜻(道)이 가리키는 것은 말로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知者不言 言者不知’의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 노자는 ‘道可道 非常道’라 하였다. 말할 수 있는 진리는 참된 진리가 아니라 의미이다. 결국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의 다른 이해라 할 수 있다. 말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것과 관련해서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구별 짓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작용할 때에 가능하다. 결국 말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은 의식세계에서 파악가능하다는 의미인

1) 『莊子』, 「天道」, 世之所貴道者書也, 書不過語, 語有貴也. 語之所貴者, 意也, 意有所隨. 意之所隨者, 不可以言傳也, 而世因貴言傳書. 世雖貴之, 我猶不足貴也, 爲其貴非其貴也. 故視而可見者, 形與色也, 聽而可聞者, 名與聲也. 悲夫 世人以形色名聲爲足以得彼之情, 夫形色名聲不足以得彼之情, 則知者不言, 言者不知, 而世豈識之哉.

바, 진리는 의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식작용을 통해 파악한 진리는 참진리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2. 비트겐슈타인의 침묵과 언어의 한계성

인간이 탄생과 함께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언어학습은 이름을 익히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사물의 이름과 관련된 단어들을 수없이 들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단어를 수없이 되뇌이고 따라하는 과정에서 학습된 단어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세상과의 관계맺음을 시작한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의 첫 번째 명제는 이를 명확하게 한다. “세계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Die Welt ist alles, was der Fall ist).”(Wittgenstein, Lee trans., 2009: 19) 이는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 관계가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세계의 사물은 우리가 이름을 짓는 순간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본다면 세계는 인간의 언어와 함께 존립 가능한 것이 된다. 세계는 언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를 통해 세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묘사가 가능한가?”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름은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나타내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은 아닌가?” 등의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철학적 문제는 ‘언어의 논리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는 전제아래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문제를 언어-논리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Lee, 2017: 122).

이 책의 전체적인 뜻은 대략 다음의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Wittgenstein, Lee trans., 2009: 15)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문제들을 언어-논리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것’과 ‘침묵해야 할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전까지 발생했던 모든 철학적 문제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했던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오류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도 없다.”(Wittgenstein, Lee trans., 2009: 92)라고 하였다. 명명할 수 없는 것은 그려볼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는 또 다른 표현을 통해 침묵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단호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단호함은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세상은 말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함으로써 지적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시도 또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윤리학은 초월적이다. 윤리학과 미학은 하나이다.(Wittgenstein, Lee trans., 2009: 113)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언어 행위는 단순하다. 가장 기초적인 언어 행위는 “이것은 책이다.”에서 이것과 책을 연결시키는 서술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소리, 예를 들어 ‘윙윙’거린 다든지, ‘멍멍’짓는 등의 소리를 제외한 모든 것은 서술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윤리학에 다루는 명제들은 단순히 서술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규정짓는 규범적 명제들에 해당한다. 미학에서 다루는 것 또한 예외는 아니다.

윤리적 가치는 단순한 가치가 아니고 절대적 가치이다(Ha, 2014: 59).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다. 만약 윤리적 가치가 절대적 가치라고 한다면, 이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다. ‘도덕적 가치, 미적 가치, 삶의 의미’ 등은 초월적 영역으로서 말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Ⅲ. 침묵의 지향점으로서 진리의 실천

1. 불언지교와 진리의 실천

노자의 ‘知者不言 言者不知’는 ‘불언지교(不言之教)’의 가르침으로 연결된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지만 그것이 추한 것이고, 모두 착함을 착함으로 인식하지만 그것이 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이 서로 낳고 어려움과 쉬움이 서로 이루며, 김과 짧음이 서로 만들어 내고 높음과 낮음이 서로 말미암으며, 음과 소리가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가 서로 따른다. 이 때문에 성인은 무심히 일을 처리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²⁾

2) 『道德經』 2장,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故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形,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 是以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인간은 의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의식의 세계 안에서 객관 사물을 구별하게 되면, 객관 사물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을 중심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등의 가치가 정해진다. 그러나 좋은 것이 과연 참으로 좋은 것인가. 또한 나쁜 것은 참으로 나쁜 것인가. 참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참으로 나쁜 것도 아니다.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 낸 조작된 좋은 것이고, 조작된 나쁜 것일 뿐이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노자는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는 미추, 유무 등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상대적임을 강조한다. 미추, 유무 등은 판단하는 개인의 감정이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실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진리라는 것을 어떤 틀 속에 가두어 놓은 상태에서 교육한 결과라는 의미이다. 노자의 이런 사유에는 기본적으로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유가 깔려있다(Cho, 2003: 216). 어느 특정한 시점을 택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내리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 된다는 것으로, 쉽 없이 변화하는 세계를 언어로서 고정시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진리를 깨달은 성인의 행동은 작위적인 것보다는 무위(無爲)로서 나타난다. 자연의 변화라는 진리를 체득한 성인은 말로서 표현하기 보다는 불언을 통한 가르침을 전할 수밖에 없다. 노자의 불언지교는 쉽 없이 변화하는 진리는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입장에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불언지교는 몸소 행하는 실천의 개념으로도 연결된다. 진리를 체득한 성인의 가르침은 말로 드러내기 보다는 성인이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화가 된다는 의미이다. 몸소 실천하는 성인의 가르침은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이 “내가 아무 하는 일도 없으니 백성들이 저절로 감화되었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었으며, 내가 일삼는 일이 없도록 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백성들이 저절로 순박해진다.”³⁾

여기서 고요함을 좋아하고, 사사로움이 없으며, 욕심이 없는 것은 작위의 의미가 아니라 무위의 의미로 성인은 무위로서 일을 되게 한다는 것이다. 몸소 실천하는 가르침은 『장자(莊子)』, 「덕충부(德充符)」에서도 발견된다.

노나라에 다리 잘린 사람 왕태가 있거늘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공자와 서로 같았다. 상제가 공자에게 물었다. “왕태는 다리 잘린 사람인데도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선생님과 함께 노나라를 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서서 가르치거나 앉아서 의논하지도 않는데 마음을 비우고 갔다

3) 『道德經』 57장, 故聖人云 我無為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樸.

가 가득 채워서 돌아옵니다. 과연 말없이 학생들로 하여금 무형 중에 마음속으로부터 깨닫게끔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 분은 성인이신데 나는 단지 뒤떨어져 아직 찾아가 뵙지 못하였다. 나도 장차 스승으로 삼으려 하거늘 하물며 나만 못한 사람이라! 어찌 노나라뿐이겠는가! 나는 장차 천하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이 분을 따르리라.”⁴⁾

왕태는 진리를 설명하지도 말로써 가르침을 전하지도 않았지만 노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왕태는 욕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남의 단점을 드러내어 아픔을 주지도 않는다. 위로의 말을 하지도, 어떤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는다. 특별히 어떤 가르침을 주지도 않건만 그를 만나고 온 사람은 마음이 채워져서 돌아온다.

원래 인간은 이러했었다. “덕을 머금고 있음의 두터움을 갓난아기에게 비유할까?”⁵⁾라고 하였다. 갓난아기는 욕심이 없다. 대신 덕을 머금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덕이 있다고 칭송하는 성인조차도 갓난아기에 비유할까라고 하였다. 이것이 본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물질적 삶은 장성하면 늙고, 그것을 일컬어 도로써 살지 않았음이라 하였으니, 도로써 살지 않는 것은 일찍 그만두어야 한다”⁶⁾고 하였다. 사람들은 왕태를 통해서 본연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노자와 장자의 불언지교는 개인의 수양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성인의 불언, 무위의 가르침이나 양태의 불언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의 수양의 결과이다. 결국 노자의 ‘知者不言 言者不知’와 ‘不言之教’는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자에게 있어 실천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배움을 행하면 날마다 보태지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 무위의 경지에 이른다. 무위를 행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⁷⁾

배움을 통해서 앎을 축적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건만, “배움을 꿰으면 근심이 없어진다.”⁸⁾라는 언설을 통해 위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자가 설한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悅乎)’⁹⁾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견해이다. 노자는 기본적으로 유가에서의 학은

4) 『莊子』, 「德充符」, 魯有兀者王骀, 從之游者, 與仲尼相若. 常季 問於仲尼曰 “王骀兀者也, 從之游者, 與夫子中分魯. 立不教坐不議, 虛而往實而歸, 固有不言之教, 無形而心成者邪. 是何人也” 仲尼曰 “夫子聖人也. 丘也直後而未往耳. 丘將以爲師, 而況不若丘者乎. 奚假魯國, 丘將引天下而與從之.

5) 『道德經』, 55장, 含德之厚, 比於赤子.

6) 『道德經』, 55장, 物壯則老, 謂之之道, 不道早已.

7) 『道德經』, 48장, 爲學日益, 爲道日損,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8) 『道德經』, 20장, 絕學無憂.

인간의 본성을 억압한다는 입장이다. 욕망을 추구하고 글에 색채만을 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불언지교를 통해 자연에서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은 이런 저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만물을 화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자의 불언지학은 갓난아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노자가 배움의 모든 것을 끊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의도를 가지고 일을 꾀하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그것을 잃게 된다. ... 그래서 성인은 욕망하지 않기를 욕망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不學을 學하여 못 사람들의 허물을 돌려놓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물의 자연스러움을 돕는 것이지 감히 함부로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¹⁰⁾

노자의 학불학(學不學), 즉 작위적인 배움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불언지학의 또 다른 표현이다. 아무튼 노자는 작위적인 것을 지양하고 있음에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일반인이 이해하고 실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면 일반인은 ‘知者不言 言者不知’의 삶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도덕경』은 들어냄의 미학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도덕경』 자체가 들어냄의 가르침이 되겠지만, ‘자기를 앞세우지 말며’¹¹⁾,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날 줄 알며’¹²⁾,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¹³⁾, ‘만족할 줄 알면 넉넉하며’¹⁴⁾, ‘위해주어도 생색내지 말며’¹⁵⁾ 등의 가르침들을 통해 진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진리는 물과 같은 것’¹⁶⁾이며,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¹⁷⁾인 바, 실천을 통한 깨달음이 지자불언의 또 다른 표현이 된다. 결국 이상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 ‘지자불언, 언자부지’와 ‘불언지교’, 그리고 ‘학불학’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9) 『論語』, 「學而」.

10) 『道德經』, 64장, 爲者敗之, 執者失之... 欲不欲, 不貴難得之貨, 學不學, 復衆人之所過, 以輔萬物之自然而不敢爲.

11) 『道德經』, 7장, 後其身而身先.

12) 『道德經』, 9장, 功遂身退.

13) 『道德經』, 32장, 知止所以不殆.

14) 『道德經』, 33장, 知足者富.

15) 『道德經』, 51장, 爲而不恃.

16) 『道德經』, 8장, 上善若水.

17) 『道德經』, 14장, 視之不見.

2. 침묵의 또 다른 이름, 실천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명제는 비트겐슈타인이 가졌던 문제의식을 잘 대변해준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철학이란 언어 비판에 다름 아니라는 의미이다. 플라톤에서부터 당시까지 서양철학이 지녔던 문제들이 언어의 논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그러한 상황 하에서 계속 의미 없는 철학적 명제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명제)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의미 있는(sinnvoll) 명제’, ‘의미 없는(sinnlos) 명제’, 그리고 ‘무의미한(unsining) 명제’가 그것이다(Lee, 2017: 133). “저것은 느티나무이다”와 같이 참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는 명제는 의미 있는 명제이며,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와 “그는 결혼한 총각이다.”와 같이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 명제는 의미 없는 명제들이다(Lee, 2017: 133-134). 문제는 무의미한 명제들이다.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세계를 넘어서는 것을 서술하는 명제들은 모두 ‘무의미한 명제’들이다(Lee, 2017: 133-134).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진리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등의 질문들과 ‘도덕적 가치, 미적 가치, 삶의 의미’등과 관련해서 답을 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된다.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해 온 당시까지의 철학에 대해서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답을 구하려는 시도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무의미는 참/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의미와 무의미는 서로 성격 및 층위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Park, 2011: 5).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의미 있는 명제들은 과학적 명제들일 수 있다. 과학은 증명의 문제인바, 세계는 언어의 세계이고, 그 언어는 자연과학적 명제의 총체이기 때문이다(Cho, 2012: 212-213). 그러나 종교, 신앙, 도덕, 윤리, 아름다움, 예술 등은 그렇지 않다.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과학으로 재단할 필요도 없으며, 과학으로 종교를 분석할 필요도 없다. 이 같은 문제는 도덕, 예술 등에도 적용된다. 과학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며, 이외의 무의미한 명제들인 종교적 문제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종교를 형이상학과 윤리학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영역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윤리적인 것은 단순히 도덕적 ‘선(善)’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일반을 가리킨다(Lee, 2013: 89). 또한 윤리학을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 또는 삶을 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탐구, 또는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한 탐구”(Wittgenstein, Lee trans., 2006: 26)로 설명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윤리학은 종교적인 것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윤리적 탐구의 지향점 또한 종교적이기 때문에 『논리-철학 논고』의 요점 또한 종교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Lee, 2013: 89).

그런 의미에서 정리하면 비트겐슈타인은 과학과 논리학의 영역은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

고 윤리학이나 종교, 예술 등은 말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윤리적인 행위, 예술의 아름다움, 존재의 의미 등은 언어의 영역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의 침묵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명료하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말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은 말해 질수 없는 것이라도 보여 질(shown) 수는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Fann, Hwang & Lee trans., 1989: 44-45).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에서의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종교와 형이상학 및 윤리학임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침묵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의 의미로만 한정하기 보다는 실천이라는 측면의 강조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게 해야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종교인은 아니었으나 그의 삶은 종교적이며 윤리적이었음(Ha, 2008: 287)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보여 진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직접적인 실천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몸소 실천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신앙하는 것과 도덕적인 행동, 그리고 예술 행위를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주체가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방점을 두자는 것이다. 보여 지는 것은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하는 어떤 것으로 개인의 진정성이 평가절하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종교인들이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믿음이 그의 삶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 존재를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이 신의 존재 앞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 아내기만 하는 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는 명제는 ‘보여 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천’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이렇게 할 때, 비트겐슈타인이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 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이 잘 드러날 수 있으며, ‘침묵하라’는 것이 실천하는 삶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다 윤곽하게 해주는 명제로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IV. 나가며

사피엔스들은 일과를 마친 밤에 모닥불을 중심으로 모여 앉아서 그 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었을 것이다. 사냥을 나가서, 채집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일들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다. 언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처음에는 사실만을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험치가 늘어나면서,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하면서 인간의 언어유희는 무한대의 영역까지 확장되었을 것이다. 사냥에서 놓친 토끼가 사슴이 되고,

호랑이가 되었으며,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하늘이 내리는 비로, 밤하늘에 내려치던 번개가 하늘이 내려치는 번개로 변모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노자는 “진리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고 했다. 언어를 통해서 세상사를 다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실상 언어로 말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말하는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와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서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와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분명히 나누어짐을 설명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는 단어 그대로 ‘침묵’해야 하는가. ‘침묵’의 의미 그대로 잠잠히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노자의 ‘불언’과 비트겐슈타인의 ‘침묵’은 잠잠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자는 ‘지자(知者)’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을 비움의 미덕에서 찾고 있다. 이에 다다르기 위한 무위의 실천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지자불언’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의 침묵도 ‘실천’에 다름 아니다. 물론 침묵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여 진다’, ‘보여 준다’는 것은 3자의 입장에서 보여 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보여 지는 것’과 ‘직접적 실천’은 결을 달리한다. 실천이 있었기에 보여 지는 것이겠지만, 보여 지는 것의 유무와는 별개로 진리의 실천은 수양의 한 방편이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가려져 있던 본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불언’과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를 통하여 말하기보다는 끊임없는 실천을 통한 자기수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을 명료하게 말해야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명료하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을 너무 쉽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세상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하다.

References

- Cho, M. H. (2003). Taoists' Attitude Towards Education And Its Modern Meaning. *Journal of Eastern Philosophy*, 32, 207-227.
- Fann, K.T.. *What is Wittgenstein's philosophy?*. 황경식 · 이운형 옮김 (1989).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광사.
- Ha, Y. M. (2008). Religious practice as Instinct-action.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ation*, 44, 287-311.

- Kim, H. K. (2018). A Study on Wittgenstein's Wonder as a Mode of Silence and Communication -Focused on the Tractatus and "A Lecture on Ethics"-, *Philosophy · Thought · Culture*, 28, 29-49.
- Lee, Y. C. (2013). Religious Belief and Language: -Wittgenstein's View of Religion. *Philosophical Studies*, 102, 87-120.
- Ludwig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이영철 옮김 (2009). 논리-철학 논고. 서울: 책세상.
- Ludwig Wittgenstein. *Kleine Schriften*. 이영철 옮김 (2006). 소품집. 서울: 책세상.
- Park, H. D. (2011). Wittgenstein's Understanding of Religion. *Korea Reformed Theology*, 30, 216-250.
- Harari, Yuval Noah. *Sapiens*. 조현욱 옮김 (2018). 사피엔스. 파주: 김영사
- 論語 (Translated in English) the Analects of Confucius.
- 道德經 (Translated in English) Tao Te Ching.
- 이기동 (2001). 노자. 서울: 동인서원. (Translated in English) Lee, G. D. (2001). *Lao-tzu*. Seoul: Donginseowon.
- 이진우 (2017). 의심의 철학. 서울: 휴머니스티. (Translated in English) Lee, J. W. (2017). *The Philosophy of doubt*. Seoul: Humanist.
- 莊子 (Translated in English) Zhuangzi.
- 정진홍 (2003). 경험과 기억 (Translated in English) Chung, J. H. (2003). *Experience and memory*. Seoul: Dangdae.
- 조중걸 (2012). 플라톤에서 비트겐슈타인까지 (Translated in English) Cho, J. G. (2012). *From Plato to Wittgenstein*. Seoul: Jihyejeongwon.
- 하영미 (2014). 비트겐슈타인의 종교관과 철학. 서울: 서광사. (Translated in English) Ha, Y. M. (2014). *Wittgenstein's view of religion and philosophy*. Seoul: Seokwangsa.